



Hello! I am Sister Mary Ann Winters who found our Sisters of Charity in the parish we joined when my family moved from Ridgewood, New Jersey where I grew up. We drove 2,500 miles to Phoenix, Arizona. When we went to Mass the first Sunday right away my mother felt at home because she was taught by our sisters in Altoona, Pennsylvania. We did too because they were so welcoming and friendly. We were very happy in our move into St. Catherine parish and school. I attended St. Mary's High school in Phoenix.

Sister Esther Marie Phillips and I entered in Arizona on September 8, 1955. We joined our group in Greensburg in the beginning of October. We got to know them and they introduced us to Pennsylvania culture. We soon were teaching after we took some of the education classes at Seton Hill College.



Teaching in Pittsburgh, Tucson, Altoona, Johnstown, was a growth experience. I loved teaching from 4th grade through high school. Then I was prepared to teach biochemistry at Seton Hill University where I met Sister Mary Leon Bettwy who helped me learn not only what it was to teach science but also what it was to serve the community in leadership. I served in leadership for 12 years at the end of which I came to know the sisters in the US as well as Korea.



Then I served as chancellor in the Diocese of Phoenix for ten years which included many facets including working with the Native American, Hispanic and Vietnamese offices and parishioners.

It was a blessing after that to teach conversational English to students at St. Joseph's in Gangjin and live with delightful sisters for two years. Then I was called back to serve in formation in Pennsylvania. During that time, I even had the opportunity to serve children in the Ecuador program and



continue part-time teaching at Seton Hill University and then pastoral ministry at Caritas Christi.

Now I live at Caritas Christi where I visit with the sisters and do what I can to help out. We have a wonderful community, joined by sisters from Korea!!



안녕하세요! 메리 앤 윈터스 Mary Ann Winters 수녀입니다. 우리 가족은 제가 자란 뉴저지주 리지우드를 떠나 자동차로 2,500마일 떨어진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이사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다니게 된 본당에서 사랑의 수녀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펜실베이니아주 알투나에서 살 때 사랑의 수녀님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사 후 첫 주일 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본당을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셨어요. 수녀님들이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덕분에 가족들 모두가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성 카타리나 St. Catherine 본당과 학교에 다니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피닉스에 있는 성 마리아 고등학교 St. Mary's High school에 다녔습니다.

저는 에스더 마리 필립스 Esther Marie Phillips 수녀님과 함께 1955년 9월 8일 애리조나로 입회하여, 10월 초에 그린스버그로 입회한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그린스버그에서 입회 그룹 친구들과 알아가면서 친해졌고 친구들은 저희 둘에게 펜실베이니아의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씨튼힐 대학에서 교육학 수업을 받은 후에 곧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피츠버그, 투산, 알투나, 존스타운에서 가르친 경험은 저에게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는 일이 좋았습니다. 그 후에 씨튼힐 대학교에서 생화학을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메리 레온 베틀위 Mary Leon Bettwy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수녀님을 통해 저는 과학 교육뿐 아니라 수녀회 리더십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12년 동안 수녀회 장상직에서 봉사하면서 미국과 한국 수녀님들을 더 알게 되었지요.

이후 10년은 피닉스교구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미국 원주민, 히스패닉, 베트남인 사무소와 본당 신자들과 함께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일했습니다.

그러고는 2년 동안 한국 강진 성요셉 여고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쾌활한 한국 수녀님들과 함께 살았지요.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펜실베이니아주로 돌아와 양성 사도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콰도르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가졌고, 씨튼힐 대학교에서 계속 파트 타임으로 가르쳤으며, 카리타스 크리스티에서 원목 사도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카리타스 크리스티에 살면서 수녀님들을 방문하며 제가 도울 수 있을 일들을 하고 있지요. 한국에서 온 우리 수녀님들과 함께 멋진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